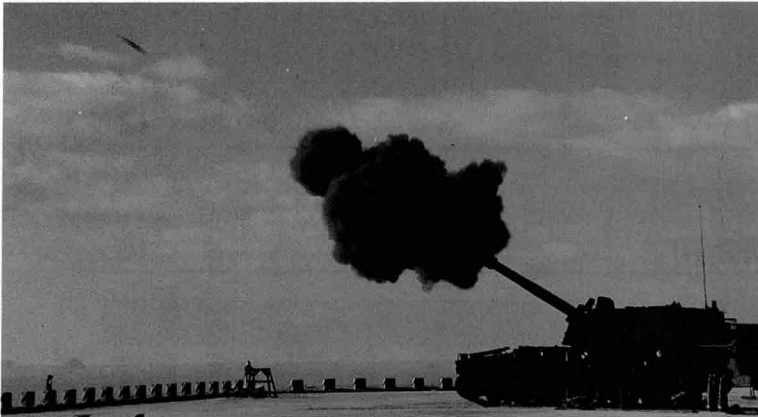


삼성항공, 40km 사정 신형자주포 개발

— 기존 K-55 보다 3배 이상 화력 효과, '99년 부터 양산 예정



명중률도 98%나 돼 25km 사거리의 기존 자주포 보다 3배 이상의 화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신형자주포는 사정거리 20~30km 내외인 북한의 1백22mm, 1백30mm, 1백52mm 자주포보다 사정거리가 길어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떨어졌던 포병화력을 대폭 개선하게 되었다.

삼성 항공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1백55mm 신형 자주포(XK-9)의 공개 화력시범이 지난 6월 11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李養鎬 국방부장관, 軍 고위관계자, 제작에 참여한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에 개발된 신형자주포는 기존 K-55 자주포에 비해 사거리가 40km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사격위치 선정에서부터 포탄 장전에 이르기까지 자동식으로 처리되어 초탄 발사시간이 30초 이내로 단축되었고 분당 6~8발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 부터 양산에 들어갈 신형자주포는 신속한 진지변환과 함께 적의 대포(對砲) 탐지 레이다의 추적을 피할 수 있으며,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적

신형 자주포 제원

최대 사거리	40km
발사 속도	분당 6~8발
전투 중량	45t
포탄 적재량	48발
길이×폭×높이	12×3.4×3.5m
항속거리	3백60km
최대속력	시속 60km
승무원	5명

발되어 적 극적인 해외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

방산학회, 6·25 회고 안보 세미나 개최

—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을 주제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촉구

한국 방위산업학회(회장 白永勳)는 6월 21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회장 柳續佑)와 공동으로 尹鍾昊 국방부 제2차관보, 安秉吉 방진회 상근부회장 등 産·學·研·官·軍이 참석한 가운데 6·25 46주년을 회고하며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을 주제로 안보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의식의 고취와 더불어 당면한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재조명하기 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白永勳 회장은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의 진로」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개방화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기술패권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큰 맥락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鴻來 前 공군참모총장은 「미래 전쟁양상과 한국의 군사력 정비 방향」이란 주제를 통해 미래전쟁 양상을 『초기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선제기습전, 첨단과학무기를 이용한 탈대량파괴와 초정밀 공격전,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그리고 우주전이 보편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군사력 정비 방향을 『軍 구조를 병력

집약형 구조에서 기술집약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확장된 작전영역에서의 공중우세를 획득·유지하기 위해서는 항공력의 증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黃東準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군사기술 선진화와 방위산업의 재도약」이라는 주제를 통해 『21세기 우리가 확보해야 할 항공·전자무기 등 첨단무기체계에서 핵심 기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과다에 관계없이 이를 집중 육성하고, 후속사업 내지 물량을 적기에 창출하여 우리가 확보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5 회 합상토론회」 거문도 해상에서 열려 ...

- 해상 국익 확보 위해 해군력 강화 필수

제5회 합상토론회가 21세기 신 해양질서 하에서 “국가 해양력을 키우고 해군력을 발전시켜 해상에서의 국가이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남해 거문도 근해의 친지합상에서 열렸다.

해군은 최근 중국이 자국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과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는 물론 남사군도 문제와 관련해 무력시위도 불사하고 있으며, 일본도 독도의 자주 영토권을 주장하는 등 동북아 각지에서 영토와 영해경계 문제를 놓고 당사국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맞물려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력, 즉 해군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상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91년 1회를 시작으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합상토론회는 특히 올해 제정된 “바다의 날”에 맞추어 실시돼 해양에 대한 전 국민적 의지를 반영했으며, 동북아 해상권을 장악해 조국에 막대한 부를 안겨준 해상왕 장보고의 출생지인 거문도 근해에서 열려 더 의미가 깊다.

이번 토론회는 鄭竣昊 교수(국대원)의 사회로 朴椿浩 교수(고려大), 金慶敏 교수(한양大), 崔恒順 교수(서울大), 趙正濟 박사(해운산업연구원장), 金在哲 동원산업 회장 등이 “해양력과 국가경



제”라는 주제하에 각자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고, 학계, 언론계, 국방부, 합참, 해군본부 등 군관계자, 재경원 실무자, 대학생, 해군장병 등 총 2백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동북아 각국이 해상에서의 경계문제와 영토분쟁에서 자국 이익쟁취를 위해서는 무력시위도 불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직시할 때,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음은 물론, 세계 2위의 조선능력과 세계 10위의 수산대국을 만들어준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해운업과 해상교통로 유지 등 바다에서의 국익 확보 차원에서 해군력 증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